

“멈추면 미래 없다”... JY, 반도체 장비업체 현장경영

이재용 삼성 부회장 ‘세메스’ 방문
중장기 사업 전략 등 점검·논의
“불확실성 끝 알수없어... 갈 길 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현장 경영을 재개했다. 반도체 산업 핵심인 장비업체 세메스를 찾아 중장기 미래 먹거리 확보를 예고했다.

6월 30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이날 천안 세메스 사업장을 방문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장비 생산공장을 둘러보고 중장기 사업 전략을 점검했다.

김기남 부회장과 이동훈 삼성디스플레이 사장, 박학규 DS부문 경영지원실장과 강호규 반도체연구소장 등 경영진과 동행했다.

이 부회장은 경영진과 함께 ▲반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진들과 함께 세메스를 방문했다. (왼쪽부터) 김기남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 이동훈 삼성디스플레이 사장, 강창진 세메스 사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천안 세메스 사업장을 방문해 배식을 받고 있다. /삼성전자

체·디스플레이 제조장비 산업 동향 ▲설비 경쟁력 강화 방안 ▲중장기 사업 전략 등을 논의했다. 제조장비 생산공장을 살펴보고 임직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세메스는 1993년 삼성전자가 설립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용 설비제작 전문 기업이다. 경기 화성과 충남 천안 등 국내 두 곳의 사업장에 20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미국 오스틴과 중국 시안에도 해외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불확실성의 끝을 알 수 없다. 갈 길이 멀다. 지치면 안된다. 멈추면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그동안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의 약점으로 지적됐던 소재·부품·장비 분야를 육성해 국내 산업

생태계를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해 세메스를 찾았다고 알려졌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해 7월 일본 수출규제 당시 일본으로 직접 출장을 다녀온 직후 긴급 사장단 회의를 소집해 단기 대책 및 중장기 대응 전략을 논의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은 당시 “흔들리지 않고 시장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자”고 강조하며, 사장단에게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해 시나리오 경영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지난 15일 삼성전자 반도체 및 무선통신 사장단과 연달아 간담회를 가진 이후, 19일에는 반도체 연구소, 23일에는 생활가전사업부를 찾아 중장기 전략을 논의하는 등 위기 극복 및 미래 준비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한-EU, 화상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총무실에서 유럽연합(EU)의 샤를 미셸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화상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

‘칠말팔초’ 폭염대비 역대최대 전력 확보

(7월말~8월초)

산업부,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대책
저소득 취약가구 전기료 지원 상향

올해 여름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역대 최대 전력공급 능력을 확보해 대응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보고했다.

산업부는 올 여름 최대 전력수요를 ‘기존 전망’으로 8730만kW(킬로와트), ‘상한 전망’으로 9080만kW 안팎으로 예상했다. 올여름 기온은 작년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산업용 전기 수요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수치다.

여름철 전력수요는 보통 기온에 더 큰 영향을 받는데, 예상 기온을 단일치로 할 경우 2018년처럼 111년 만의 폭염

이 닳으면 전력 수요 전망이 빗나갈 수 있어 작년부터 기존 전망과 상한 전망으로 나눠 예측하고 있다. 올해 기준 전망은 평균 29.1도, 상한 전망은 평균 30.1도다.

정부는 최대 전력 수요를 기록하는 시기는 7월 다섯째 주~8월 둘째 주 사이로 예상하고, 3주간 전력 수요 피크 관리에 집중할 방침이다.

피크 기간 발전 공급능력은 1억19만kW로, 여름철 수급 대책 기간 역대 최고 수준을 확보했다. 이 기간 공급능력에서 최대 전력수요를 뺀 예비력은 작년보다 54% 증가한 939만kW 이상으로 전망된다. 939만kW는 지난해 전력 피크 때 우리나라 전체 주택용 냉방 수요의 1.2배만큼 추가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한 수준이다.

산업부는 이와 별도로 이상기온이나 발전소 불시정지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729만kW의 추가 예비자원도 확

보해 전력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늦더위에 대비해 7월6일~9월18일까지 총 75일간 운영한다.

정부는 저소득 취약가구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작년에 신설된 냉방용 에너지 바우처를 확대 지급할 방침이다. 가구당 평균 지원액을 작년 7000원에서 올해 9000원으로 올린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장애인 등에 대한 복지할인 한도를 평상시 1만6000원에서 7~9월 2만원으로 늘리고, 4~9월 전기요금에 대한 3개월간 납부 유예도 한다.

정부는 올해 코로나19상황임을 고려해 공공부문은 수요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민간부문은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의 경우 적정 실내온도 제한 등 수요 관리 이행 실태 점검 대상을 150곳에서 240곳으로 확대하고, 점검 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

/한용수 기자 hys@

제조업 체감경기 5개월만에 반등

한은, 6월 기업경기실사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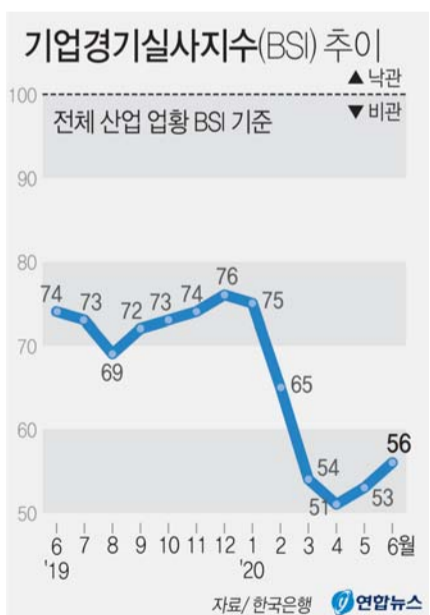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두 달 연속 상승했다. 특히 최저수준까지 떨어졌던 제조업 업황이 전자 영상 통신장비와 전기장비 등을 중심으로 5개월 만에 반등했다. 기업과 소비자 모두를 포함한 민간의 체감경기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경제심리지수도 올랐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2020년 6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에 이달 전 산업업황 BSI는 전월 대비 3포인트(P) 상승한 56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4개월 만에 상승 전환한 뒤 2개월 연속 오름세다.

BSI는 기준치 100을 넘으면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많음을, 100을 밑돌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제조업의 이달 중 업황 BSI는 51으로 전월 대비 2포인트(P) 상승했다. 자동차 산업 부진으로 1차 급속(-15P)은 하락했지만 스마트폰 등 수출이 증가하면서 전자·영상·통신장비가 7P 상승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으뜸효율 가진



제품 구매비용 환급정책, 긴급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정책효과와 주요국의 경제활동 재개로 인한 수출부진 완화 등의 영향으로 업황 BSI가 개선됐다”고 말했다.

제조업체들은 한 달 후에는 기업경기가 더욱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7월 업황 전망 BSI는 지난달과 비교해 2P 오른 51을 기록했다. 이달과 마찬가지로 다음달에도 전자 영상 통신장비가 전달보다 8P오르고 전기장비는 12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나유리 기자

금융위 ‘환매중단’ 옵티머스운용, 영업정지 명령

투자자 보호 일부업무 등은 제외

금융당국이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영업 전부 정지 등의 조치명령을 내렸다. 검찰 수사 등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펀드관리 운용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제4차 임시회의를 열고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조치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옵티머스 자산운용은 임직원 대부분이 퇴사하고,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펀드를 관리·운용하는데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모든 업무를 정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집합투자업(부동산, 전문사모)을 영위하고, 46개 펀드, 5151억원을 운용하



옵티머스 자산운용. /연합뉴스

고 있다.

그러나 옵티머스자산운용은 현재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고 투자자를 끌어모은 뒤 투자금액을 대부업체 등이 발행한 사모사채에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지난 19일부터 현장감사한 결과 펀드자금 중 2699억원이 이들 투자처로 흘러간 것으로 나타났다. 펀드 운용 잔액의 절반 수준이다.

검찰도 옵티머스자산운용이 펀드에 공공기관 매출채권 대신 부실 사모사채를 담은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에 따라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오는 12월 29일까지 약 6개월간 모든 업무가 정지된다. 업무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부동산),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겸영업무, 부수업무 등이다.

다만 펀드재산 보호를 위해 투자자보호상 필요한 일부업무와 금감원장이 인정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금융당국은 또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했다.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와 관리인 선임기간은 업무정지기간과 같은 오는 12월 29일까지다.

/나유리 기자 yul115@